

# 전주시 2018년 예산(안) 1조5234억

###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초점 편성... 함께하는 복지·관광일자리 창출·생태공간 구축 등

전주시가 관광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생태공간 구축, 함께하는 복지 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초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지난 17일 1조5,234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1조4,297억원)보다 936억원(6.55%)이 증액된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 3,228억원으로,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 등 복지분야 사업과 주요 국정시책 사업추진으로 인한 국고보조사업 등이 증가해 올해 당초예산(1조2,186억원)보다 1,042억원(8.55%) 증가했다. 상·하수도 공급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106억원(5.0%) 감소한 2,006억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가장 인간적인 도시 구현 △문화가 힘 이 되고 관광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 조성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생태교통 시스템 실현 △활기찬 일자리 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는 촘촘한 전주형 복지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복지 실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5,906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769억원과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운영 4억원 등 △저소득층 보장을 위한 예산 1,155억원, 신설된 아동수당 197억원과 선미촌 탈성매매 여성자활지원 강화예산 2억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 2,189억원이 책정됐다. 또, 기초연금 1,401억원 등 △노인 및 청소년 예산 1,974억원과 △장애인 지원예산 489억



2017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전주시와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17일 덕진예술관에서 전주시 33개동이 참여하는 '2017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했다.

원, 청년수당 등 △청년 지원예산 5억원, 국가예방법집중 88억원 등 △보건의료예산 237억원도 책정됐다. 이와 함께, 시는 세계가 찾아오는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만들어 문화가 힘 이 되고 관광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99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사업은 △전라강역 재창조사업 28억원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28억원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사업 12억원 △평화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32억원 등으로 전통문화 복원 재창조와 전통문화 콘텐츠 확충, 관광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한옥마을 조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이 골고루 편성됐다.

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자원이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등 △생태교통 시스템 실현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패러다임 생활환경 제공 567억원 △에너지 자립 및 자연순환형 도시 41억원 △자연친화 생태공간 조성 172억원 △창조적 인 전주형 도시재생 174억원 △사람중심 교통서비스 제공 464억원 △패러다임 도로환경제공 469억원 등 1,85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시는 △전주형 사회경제 육성 △노년 순환하는 내부순환경제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통해 활기찬 일

자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950억원의 예산도 반영시켰다.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산업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 지역제품 판로확대와 해외마케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도 강화한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3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 시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 상반기 균형집행을 위해 집행 간소화제도를 적극 활용 경기안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 수어배너, 인식전환 '한 뭉'

### 수어 알리기 위해 전주시 공공기관 41개소에 비치 공무원 300명 모니터링... 68.8% 인식개선 '도움'

전주시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를 알리고, 지역사회에 소통과 배려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작한 수어 배너가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기본적인 생활수어를 소개한 배너 사진이 비치된 관내 공공기관 41개소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수어배너가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수어와 수어사용자에 대한 친숙함을 이끌어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생활수어배너는 지난 7월부터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33개동 주민센터 등 전주지역 공공기관 41개소에 비치했다.

이번 설문에 응한 공무원 247명 중 170명(68.8%)이 수어배너가 청각장애인과 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77명(31.2%)보다 많았다.

또한, 배너의 추가 비치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84.6%인 209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배너비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회가 되면 수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의견도 140명(56.7%)으로 조사돼 청각장애인과 소통 및 수어통역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한 공무원은 "수어를 모르는 한 청각장애인이 오후 아르바이트를 가기 전 주시청 민원실에 들러 배너를 보며 수어를 조금씩 익혔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청각장애인들과 가벼운 인사와 민원안내를 할 수 있도록 배너를 이용해 기본 수어를 숙지하려고 꾸준히 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직원들이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현재 전주시 등록 장애인인 3만2,909명, 이중 청각·언어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의 11%인 3,659명이다.

/김민근 기자

## 경찰청, 연말연시 특별음주단속 실시

전북경찰청은 17일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내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오는 11월 20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73일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음주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51.6% 감소했으나 음주사고 발생건수는 0.8% 소폭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 2회 이상 43.8%, 3회 이상 18.4%로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지역별 실정에 따라 유흥가 등 음주운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한 상시단속과 스캇이동식 단속 방식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면서 매주회 이상 도내 불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삼민 기자

## 완산경찰, '로고라이트' 설치

완산경찰서는 17일 주간에만 홍보할 수 있는 기존 현수막, 전단지 홍보에서 벗어나 어두운 저녁에도 빛으로 현출되는 시각영상홍보장치 '로고라이트'를 지난 15일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고라이트는 원하는 홍보이미지를 벽면, 바다, 천장 등 다양한 장소에 홍보가 가능하며, 교통법규준수 메시지를 담아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인 신시가지, 비보이광장, 경찰서 앞 버스정류장 등 4개소에 설치했다.

경찰서 서장은 "교통사고 줄여주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 '文 지지모임 학생동원' 우석대 교수·연구원, 집행유예·벌금형

전주지법 형사1부(장관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상 제3차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대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조교수에게 벌금 700만원, 연구원 C씨 등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 등은 지난 2월 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재인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학과생 172명을 참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행사가 끝나고 인근 식

당에서 참석한 학생들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영화 관람을 제공하는 등 모두 82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해당 교수는 "단순히 견학의 한 수단으로 간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학생들은 "강제성이 있었다고 느꼈다"고 진술해 입장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과장 및 교수로서 소속 학과 학생들의 강의·평정을 담당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졸업 후 관련 취업을 할 때 영향력이 큰 점에 비해 보면 학생들은 흑시라

도 등록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해 어쩔 수 없이 경선에 참여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관해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정치적 행사에 동원하고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의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최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삼민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역**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운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